

더 셀러브리티

THE

# CELEBRITY

www.thecelebrity.net

배우 임시완  
**Play Time**

**I'm Amber**

슈퍼 주니어 이특의  
특별한 놈코어 룩

장수원  
로봇 킹 스타일

**SPECIAL THEME**

# LET'S PLAY

셀러브리티 9인의 장난감 사랑  
스파이더맨에게 발목 잡힌 모델 이현이의 키덜트 룩  
바비부터 건담까지 토이계의 레전드 총출동





박미나 / [(-.-)]ZZ (질짜~), 2008,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00x100cm

^^^ (+\_+) ^.....;

PC 통신부터 시작해 스마트폰 메신저까지, 문자가 아니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모티콘, 기호, 문장부호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예를 들어 (+\_+), -\_-;;; 등 부호가 화자의 표정이 된다. 전화 통화보다 이모티콘이 횡행하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시대, 열의 문자보다 한 개의 이모티콘이 효과적이다. 작가 박미나는 기호, 문장부호, 이모티콘을 회화적으로 재작업한 '딩벳 페인팅' 시리즈와 철자의 순서를 바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아나그램' 작업으로 유명하다. 매일 쓰는 부호이기엔 마치 언어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대담한 색과 형태를 통해 어떤 내용도 쉽게 읽을 수 없는 무의미한 상태를 그려낸다. 익숙한 폰트로 그림이 말을 거는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보면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허탈해진다. 박미나 작가의 작품을 읽으려는 진정한 시도는 여기서 출발한다. 서사가 있는 텍스트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찾아보는 것이다. 대체로 심플하고 경쾌한 분위기의 작품이지만, 작가의 작업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그 당시 사회적 이슈를 영민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작가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꾸준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박미나 작가의 작품을 계속 보고 있으니 문득 이모티콘과 문장부호 하나 없이 오로지 문자로만 완성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다.